

여수 금오도 방풍막걸리, 전남도 3월 전통주 선정

썩새름한 맛·청량 목넘김 호평
2월 대표 전통주엔 '영광소주'
대마주조, 찰보리 활용 증류주

전남도는 3월 대표남도 전통주로 방풍 특유의 썩새름한 맛과 청량한 목 넘김이 좋은 '여수 금오도 방풍막걸리'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풍의 본명은 '갯기름나물'이다. 예부터 풍을 막아준다고 해 방풍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갯기름나물은 여수 금오도가 최대 주산지로 이곳에서 연간 1346톤이 생산된다.

김유희 금오도섬마을방풍 대표는 방풍 소비처를 확대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 방풍막걸리를 만들었다.

방풍막걸리는 저도주(6%)와 고도주(10%) 두 종류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깔끔하고 귀엽게 포장해 금오도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김 대표는 방풍막걸리 인기에 힘입어 증류주 '섬싱'도 출시했다. 제품 이름도 여수를 대표하는 기념품이 되기를 기대하며 여수의 유명한 섬 이름을 따 오동도(18%), 금오도(25%), 거문도(45%)로 정했다.

2월 대표남도 전통주는 영광 대마주조(대표 정덕진)의 '영광소주'가 선정됐다. 알코올도수 45도의 '영광소주'는 보리산업 특구 영광에서 재배한 찰보리를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증류한 소주다.

1961년 문을 연 대마주조는 '대마할머



3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선정된 '여수 금오도 방풍막걸리' 전남도 제공

니막걸리'로 인근 지역까지 소문이난 영광 대표 주조장이다.

영광군이 보리를 전락사업으로 키우며 제품 개발에 나서자 대마주조도 정 대표 어머니인 대마할머니 고 이숙여 여사의 비법을 전수해 '보리향 탁주'와 '영광소주'를 탄생시켰다.

2014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와 2013년~2015년 3년 연속 남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역 농특산물로 만든 전통주는 농산물 소비 촉진과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전남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해 새 전통주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영광·김도윤 기자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구례군, 피해신고 추가 접수

구례군은 지난 15일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를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청과 8개 읍·면사무소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2023년 12월31일까지 추가 신고 접수를 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작년 1월21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실시된 1차 신고에서 총 677건(희생자 695명)을 접수했는데, 이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구례지역 희생자 1318명의 53% 수준으로 지역에서는 신고 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군은 신고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미처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을 발굴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례지역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읍·면 총무팀과 구례군 여순사건 사실조사단(061-780-8695), 구례군청 총무과(061-780-2317)에서 할 수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표고버섯 음료 시음회
장흥, 특산물 활용 재개발

장흥군은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표고버섯 음료 재생산을 위한 시음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음회에는 농협장흥군지부, 정남진장흥농협, 버섯산업연구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장흥표고음료는 지자체의 신뢰성 확보와 새콤하면서도 담백한 맛으로 연간 60만캔 판매되는 등 사랑을 받아 왔다.

2021년 4월 음료생산공장의 화재로 인해 생산이 중단됐으나 지난 2월 정남진장흥농협, 다인음료, 버섯산업연구원과 협의하여 재생산 계획을 수립, 기존 제품의 복원과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시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시음회는 표고음료 생산에 앞서 제품의 맛과 디자인을 평가받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써 표고음료 시제품 2종과 캔 디자인 4종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향후 5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정남진장흥농협 및 장흥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순천만박람회 입장권 구매
포스코그룹·협력사

포스코그룹이 지난17일 순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4억2000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전달식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 이진수 광양제철소장,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013년 순천에서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한 데 이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광양시 소재 포스코 그룹사와 협력사들이 참여해 총 4억2000만원 상당의 입장권 3만5137매를 구매했다.

포스코그룹은 순천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의 흥행을 지원하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양제철소가 구매한 입장권은 광양제철소 임직원뿐 아니라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보성군,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보성군은 보성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보성군 공무원, 보성경찰서, 전남도보성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했다.

보성군 제공

전남여성가족재단-순천시, 여성리더발굴 아카데미 개강

전문여성 교육 지역리더 육성

(재)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성혜란)은 순천시와 지역 성평등 문화를 위한 '순천시 여성리더발굴 아카데미'를 개강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순천'을 선도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 여성을 발굴해 공동체적 돌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지역 사회 리더를 육성한다.

교육은 △리더십 스타일 유형과 소통



(브랜드유 리더십센터 이진아 소장) △여성리더와의 만남, 순천지역 여성 CEO

의 일과 삶(미래지반연구소 황은아 대표)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여성친화도시 순천' 바라보기 (한국젠더문화연구원 양동욱 원장) △지구를 살리는 MZ세대의 새활용, 업사이클링(두번째생일 조아름 대표) △순천 시의회 견학 등으로 진행된다.

성혜란 원장은 "순천시 민간 정책 파트너로서 민관거버넌스 한 축을 담당하며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순천=배서준 기자

축하 저축 장려금 20만원 지원
보성군, 초등 입학생 대상

보성군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저축 장려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장려금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학교가 위치한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학생 본인 명의 통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입학 축하 저축 장려금은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의해 저출산·이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학생들의 근검절약, 저축 습관 등 경제관념 조기 정립을 위해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창업연당 입주 차세대기업 선발
순천시, 푸드테크 등

순천시가 '창업연당'에 입주할 차세대 창업기업을 선발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창업연당 입주기업 모집에 7개 기업이 신청했고 지난 7일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5개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했다.

입주기업은 각각 △씨앤씨위터(자화수기사용 작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AI-glue(인공지능 교구재 개발) △코모츠랩(모링가 소재 음료 개발) △플리테일즈(유아용 교구 판매 플랫폼 제작) △썬한글장기(한글장기 개발)이다.

이번 모집에는 에듀테크, 푸드테크 등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술창업 분야 우수 기업들이 선발됐다. 또한 인천시 등 타 지역에서 활동하던 기업들도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 순천시에서 새로운 경영활동을 영위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개별 사무공간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공용회의실, 비대면 화상장비 플랫폼, 세미나실, 휴게공간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장흥군,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 선정...20억원 확보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새단장

장흥군이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3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2023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전남도내 35개의 관광명소 가운데 3개소를 선정해 노후된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완·재생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는 장흥군이 남해안 대표 관광명소 육성을 목표로 2007년부터 조성을 시작했다.

정남진 전망대, 테마숲 공원, 불빛정원(야간경관조명), 갤러리 카페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왔으나 최근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장흥군은 '정남진 전망대'의 노후 시설을 개·보수함과 더불어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정남진 전망대를 둘러싼 테마숲 공원은 봄이 오는 길목을 화사하게 밝혀 줄 꽃동산으로 만든다.

어린이 놀이공간과 예술공연장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로 지친 현대인들

의 심신을 달래주는 '웰니스 여행 코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허브로 기능하고 있는 갤러리 카페는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창작 및 전시·공연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예술복합공간인 '감성방앗간'으로 재단장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통일기원탑과 통일기원동산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달성해 장흥군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